

대학주보

다전공 이수 기준 2~9학점 하향 학업 부담 완화 목적 우려 목소리도 나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부 학과의 다전공 이수 기준 학점이 변경된다.

이는 다전공 의무이수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과 ▲생물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인공지능반도체융합전공은 기존 기준 학점 54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축소된다.

▲물리학과 ▲화학학과 ▲지리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소속학부생 외)는 기존 54학점에서 변경 후 50학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인공지능학과는 기존 60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화학공학

과는 기존 53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이수 기준 학점이 축소된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통해 졸업학점별 다전공 과정의 권고 이수학점이 안내되고 있으나 학과별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전공 확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점이 지침 내 권고학점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는 학과들을 조정 안내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과들이 협조하며 다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다전공 이수 기준학점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박상근(서비스공학) 교수는 “다전공이라는 것은 부전공이 아닌 전공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래도 본전공생에 비해 이수 학점이 적었는데 거기서 더 줄어드는 것이기에 학업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떠나는 사람

지난 25일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에서 2025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따스한 햇살과 붉은 학위복이 어우러져 교정 곳곳을 물들였다. 졸업생들은 준비된 포토존 뿐만 아니라 애정하는 장소를 찾으며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고,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현수막도 가득했다. 손에 든 꽃다발은 들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 졸업이라는 끝과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이 맞물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어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소로 배웅했다. 떠나는 사람이 남긴 수년간의 발자국은 이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꽃길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졸업자 수는 학부 3,556명, 석사 483명, 박사 154명,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17명이다. (사진=유진우 기자)



들어오는 사람

지난 27일 서울캠 평화의 전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교시탑에서 시작된 단과대학별 퍼레이드는 레드카펫을 따라 이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표정으로 행진하던 신입생들은 경희의 이름 아래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은 삶의 경계를 넓히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공감과 통찰, 회복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가족들은 크라운관에서 실황 중계를 지켜보며 박수로 신입생들을 응원했다. 올해 입학식은 2013년부터 이어진 퍼레이드 전통 속에서 또 하나의 학번을 맞이했다. (사진=이은서 기자)

사령

면 <편집장>
하시연(미디어학 2023)
<서울 기획·보도팀장>
김규연(무역학 2020)
<국제 기획·보도팀장>
권도연(중국어학 2024)
<미디어팀장>
박서연(시각디자인학 2023)

명 <편집장>
권도연(중국어학 2024)
<지역사회팀장>
원희재(원자력공학 2021)
<서울 기획·보도팀장>
이환희(미디어학 2021)
<미디어팀장>
박류빈(사회학 2024)
<정기자>
김지민(국어국문학 2025)
유진우(체육학 2024)
홍지우(회화 2024)

2 종합

국제캠 학생 주차 정기권 총량제 유예 향후 제도 보완 후 2학기 시행 목표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국제】 2026-1학기 학생 주차 정기권 총량제 도입이 학생들의 반발로 유예됐다.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향후 학부 및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구성원 대표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제도 보완 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할 것이라 밝혔다.

총무팀은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총량제 시행에 관해 2월에 공지가 된 것이 구성원이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실제로 공지 이후 학생분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캠퍼스 내 체류 시간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로 공대 주차장을 이용하는 A씨는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거주 환경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숙사 입주가 어려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학교는 학생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량제 논의는 기존 정기권 운영 구조의 한계로부터 비롯됐다. 장애 학우, 임산부 등과 같이 특수한 경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주차권 등록을 전면 금하고 있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그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주차권 등록이 가능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우를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주차권 등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그간 학생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주차권 구입 및 등록이 가능했다.

위 배경으로 국제캠 한 직원은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 교통편이 좋지 않았을 당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생들이 제한 없이 주차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해온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정기권 등록 대수가 실제 주차 가능 대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차량 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1·2학기 학생 정기권 등록 대수 평균은 1,988대, 교직원들의 경우 1,364대로 국제캠 내 총 주차면수 1,796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총무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2,465대의 정기권 미구입 외부 차량이 학내에 출입했다.

총무팀은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나갔다 들어오는 차도 있었지만 일단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에 제한을 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는 유예는 교직원의 주차권 등록 추이에 비해 학생들의 주차권 등록 추이 상승폭이 가파른 점을 들었다. 총무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2학기 학생 정기 주차권 평균 등록 대수는 ▲2020년 634대 ▲2021년 759대 ▲2022년 1,218대 ▲2023년 1,687대 ▲2024년 1,816대 ▲2025년 1,988대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세 배 수준 증가했다. 반면 교직원의 경우 ▲2020년 1,182대 ▲2021년 1,064대 ▲2022년 1,178대 ▲2023년 1,328대 ▲2024년 1,389대 ▲2025년 1,364대로 집계됐다.

인근 대학도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는 1인 1대에 한해 재학·재직 기간 동안 구성원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등록 차량 수가 실제 주차 면수의 약 1.5배 수준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설관리팀 유희라 과장은 “해마다 학생 등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차 구역 외 공간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량제 도입 유예로 2026-1학기는 기존과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총량 제한 없이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주차 업체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황이다. 총무팀은 “2025-2학기 정기 주차권을 구입했던 경우 3월 14일까지 추가 주차권 구입 없이 주차 이용이 가능하다”며 “웹사이트는 3월 9일 오픈 예정이나 구축 상황에 따라 오픈 일자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포21 해킹 발생... 89명 정보 유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지난 2월 12일 인포21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학생 8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처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교외 접속 시 2차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공격은 ‘크리덴셜 스테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크리덴셜 스테핑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다크웹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정보처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5분경 한 학생의 신고를 통해 이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보기획팀 최효승 주임은 “전체 공격 시도

는 373회에 달했고, 이 중 89개 계정에서 로그인이 실제로 성공했다”며 “학생의 신고로 확인된 말레이시아 IP를 포함해 로그인을 시도한 해외 IP 5개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름 ▲사진 ▲학번 ▲학과 ▲학적 상태 등 기본정보가 노출된 학생이 56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상세 정보까지 노출된 학생은 33명으로 파악됐다. 최 주임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보안장비 및 전산자원의 접근 분석과 포털, 인포21 로그인 및 액션 로그 분석을 시행했다”며 “피해 계정의 인포21 패스워드를 초기화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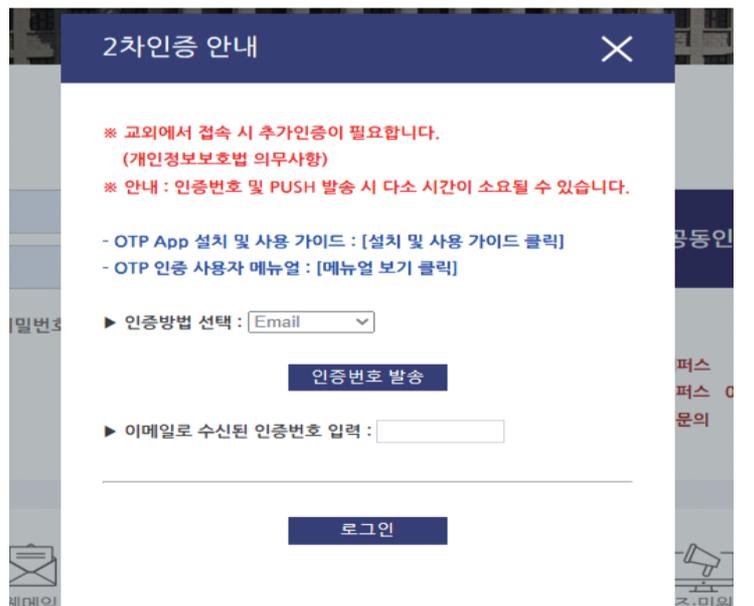
정보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외부망에서 인포21 접속 시 2차 인증 대상을 기존 교직원에서 학생까지 확대한 상태다. 2차 인증은 ▲휴대폰 ▲이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ID/PW 로그인 방식에 선택한 2차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교외에서 포털 접속 시에만 적용된다.

최 주임은 “2차 인증을 교내 접속까지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비밀번호 관리 및 2차 인증 방식 등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특정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는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밀번호로 변경만 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16시 기준, 재학



인포21 학생 대상 2차 인증이 도입으로 교외에서 접속하는 학생들은 휴대폰, 이메일 또는 OTP를 통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인포21 홈페이지 화면 캡처)

생 인포21 비밀번호 변경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사이트와 구별되는 고유 비밀번호 사용 ▲최소 6개월 주기의

비밀번호 변경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한 8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웹메일 비밀번호와 분리 운영 등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교내 출입문 택배 적체, 안내·경고에도 소용 없어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단과대마다 출입구와 로비에 택배가 쌓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학교 건물 대부분은 주소지에 적힌 호실에 직접 택배를 배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구나 1층 로비에 물품을 두고 가는 택배 기사가 많은 실정이다.

생활과학대 관리실 이인국 직원은 “각 호실까지 배송해주는 택배 기사가 30%가 될까 싶다”며 “새벽 배송의 경우 밤에 출입구가 잠겨 있으니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안내를 해도 (물품을) 정문 앞에 던져놓고 간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호관대 관리실 최광희 직원 역시 “우체국택배를 제외하면 전부 정문에 두고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영대는 정문 앞, 호관대는 로비 가림막 안쪽, 정경대는 출입구 복도, 의대는 관리실 앞에 택배가 적체돼 있다. 하지만 택배 더미를 정리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각 관리실의 설명이다. 정경대 관리실 심한식 직원은 “오래된 택배라도 합부로 처분할 수 없어 1층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며 “정경대 내부에 마땅히 보관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의대 관리실 임정일 직원 또한 “1, 2년 지난 택배라도 임의 처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선반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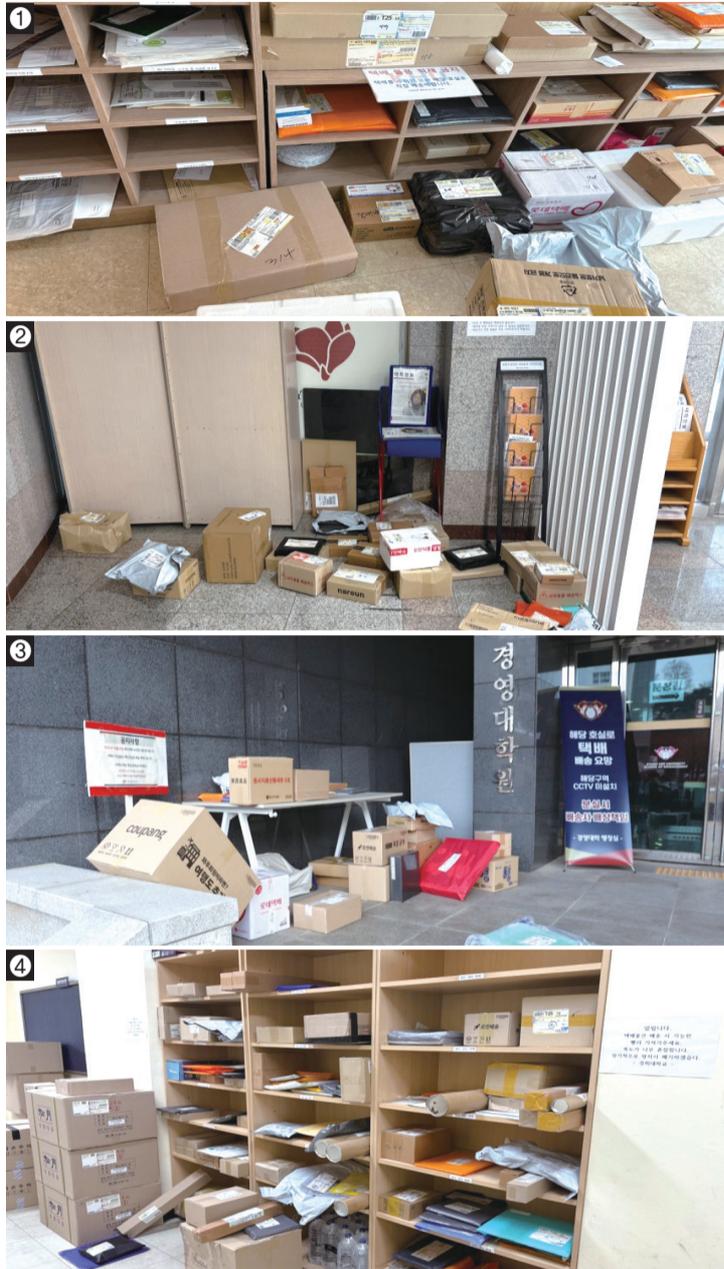
특히 의대는 외부에서 보낸 선물이거나 몇몇 기자재가 방치되는 일이 잦아 상황이 심각하다. 식품인 육포

선물 세트가 1년 동안 방치되고 있으며,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배송물도 섞여 있다. 임 직원은 “외부 선물은 받은 사람도 본인이 받은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취인도 불분명한 경우가 태반”이라며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택배는 정식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코로나 시기 교내 건물 출입 제한이 강해져 출입문 밖에 택배를 두고 가던 관례가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 각 단과대 행정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단과대 행정실 직원은 택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호관대 행정실 박소연 담당은 “택배 기사분들께 상시 고지해 드리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도 요청 사항에 ‘호실 배송’을 적어달라 하는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며 “하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대부분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경영대 행정실 김민우 담당 역시 “택배 기사분들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측은 원래 가정집을 제외하면 1층 지정 공간에 택배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동대문구우체국 이혜진 우정주무관은 “학생들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개방이 돼있다 해도 각 호실까지 직접 배송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과대 출입



①의대 관리실 앞에 적체된 각종 택배 ②호관대 로비 가림막 안쪽에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는 택배 ③오비스홀 정문 앞 쌓여있는 택배 더미 ④1층에 택배보관소를 두고 있는 네오르네상스관 (사진=한민 기자)

구나 로비에 택배가 계속 적체된다면 미관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생명과학대 행정실 오승윤 행정차장은 “분실 위험도 있고, 택배가 왜 안 오나 했던 주문자분들이 뒤늦게 내려가 며칠째 방치된 택배를 수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일부 측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총무팀이 우편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본부까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며 “만약 각 건물 별로 대처하기 힘들어 본부에 보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공과대학은 적체된 택배를 폐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 행정실 한대협 계장은 “택배사와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방치된 택배가 있으면 관리실이 즉각 회수한 뒤 수령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택배 적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시스템을 손봐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네오르네상스관 역시 1층에 택배 보관소를 운영 중이기에 택배 적체 현상이 없다. 네오르네상스관 관리실 김중대 직원은 “부서별로 칸이 마련돼 있으니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가 된다”며 “2년 전에는 택배보관소가 없어서 정문 로비에 택배가 늘어서 있었는데 택배보관소 도입 후로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대학주보

제 75기 신입기자 모집

서류 제출 마감 **3.15**

1차 합격자 발표 **3.16**

면접 **3.17-18**

지원자격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유학생, 복학생

취재팀-1,2학년 / 미디어팀-1,2,3학년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부문

취재팀 (0명) - 학내 여러 사안과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자

미디어팀 (0명) -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지원하기

활동혜택

성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자 개인 명함 지급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3학기 이상 활동시 활동증명서 발급

4 졸업

기고문

경희정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유용철
동문·행정학 1986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장학 정신 아래, '학문과 평화'라는 가치를 품고 '대학다운 대학'을 지향해 왔다. 학원·사상·생활의 민주화라는 교육 이념 역시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학창 시절의 나는 그 말들이 다소 추상적인 구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시험과 취업, 당장의 고민이 더 절실했던 나에게 그 문장들은 어딘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라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을 지나며 비로소 깨달았다. 그 문장들이야말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준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빠른 결정을 요구받을 때마다 나는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 질문의 출발점에는 늘 경희에서 배운 가치가 놓여 있었다.

전후 대한민국이 '성장의 압축 혁명'이라 불릴 만큼 도약을 이루었듯, 우리 모교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경희의 성장은 단지 규모의 확장이나 외형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인공지능이 질서를 바꾸고,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성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지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가.' 경희가 말해 온 '학문과 평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단단한 기준이다. 변화가 거셀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나침반과도 같다.

1986년, 나는 이 교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의실 창밖의 나무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시간, 막연하지만 뜨거웠던 다짐들. 졸업

후 공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오는 동안, 경희에서 배운 가치는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학창 시절 받았던 장학금의 고마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리고자 그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보냈다. 거창한 결심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후 '경희라이언클럽'을 통해 마음을 이어왔고,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 건립에 동참했으며, 최근에는 공과대학 분관 건립 추진에도 동문으로서 뜻을 보태고 있다. 크지 않은 실천이지만, 학교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한 나만의 방식의 응답이라 생각한다. 문화세계를 함께 일구는 동문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녀야 할 기분 좋은 책임이라 여긴다.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선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사회는 빠른 답을 요구하고, 경쟁과 효율을 당연한 기준처럼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

성공이 언제나 속도의 문제는 아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경희에서 배운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언어가 커질수록 깊이 사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 교정을 걷는 경희사자들의 눈빛 속에는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한때 이곳을 거쳐 사회로 나아갔던 우리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시대는 변해도, 대학 시절에 배우고 느낀 가치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길 바란다. 성취를 넘어 의미를 추구하는 삶, 경쟁을 넘어 공존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교정을 찾았을 때,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경희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선배로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변화의 시대 속 미래를 향해'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사진=김가빈 기자)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졸업식사 ▲학위수여(학사·석사·박사) ▲총장상 및 최우수학술상 수여 ▲졸업생 감사 ▲축하공연 ▲교가제창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상 총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를 넘어 비상하는 '창조적 실천 지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늘은 대학 졸업이라는 끝과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이 맞물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며 "AI 기술의 현실화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희에서 학습한 역량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가 보유한 인간적인 인간의 관계와 우정 어린 환대, 협동 정신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희인은 함께 사유하고 실

천하는 지구적 세계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하기도 했다. 낭독을 마친 김 총장은 "이 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의 흔들림이라는 외풍과 비에 적셔지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젊은 시절의 심리적 방황과 흔들림은 더 단단한 성장을 위한 자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감사 대표 해주석(중국어학 2021) 씨는 "바쁜 일상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며 "대학 생활은 값진 성장통이자 훈장인 고단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열정을 바탕으로 그 과정 또한 즐기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경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서울캠 감사 대표 도혜수(의상학 2020) 씨는 대학 시절 패션 화보 동아리에서의 경험이 잡지사 근무와 해외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도전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성취 이

전에 성실함을 배우는 시간"이라며 "서투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식순이 끝난 후 서울캠 본관 앞과 국제캠 사색의 광장은 기념 사진을 촬영하러 온 졸업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 학번'인 정기환(기계공학 2020) 씨는 "새내기 시절을 제대로 못 보냈다"면서도 "그래도 즐길 만큼 즐기고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떠나는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김태훈(사회학 2022) 씨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진경(일반대학원 음악학 2020) 씨는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행복했고 후회는 없다"며 "만학도도 끝까지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은서(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2023) 씨는 새내기 시절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힘든 시절도 견디다면 결국 지나가 있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희의 이름 아래 서 있었다.

(사진=이은서 기자)

교시탑에서 평화의 전당까지 설렘과 다짐 나란히 세운 첫걸음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국제대학 입장합니다.”

올려 피진 호명과 함께 단대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수를 선두로 학장과 학생회장, 그리고 신입생들이 두 줄로 정렬해 발걸음을 맞췄다. 박수가 이어졌고 행렬 속 신입생들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평화의 전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난 27일 서울캠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은 단과대학별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각 단과대학은 교시탑 앞에 집결해 중앙로를 지나 평화의 전당으로 이동했다. 행진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색하게 서 있던 학생들도 걸음을 맞추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의 대열이 됐다. 본관 앞에서는 동아리 환영 공연이 이어지며 캠퍼스 전체가 새 학년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더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희의 이름 아래 서 있었다.

레드카펫을 건너는 짧은 시간은

수험생 시절을 지나온 시간이 되짚는 순간이기도 했다.

권지민(자율전공학 2026) 씨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행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며 “그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기대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책임지게 걸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채현(유전생명공학 2026) 씨도 캠퍼스를 둘러보며 “수험생 시절 후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뒀던 학교 건물을 실제로 보니 감동이고 설렌다”고 말했다.

평화의 전당에 도착한 행렬은 레드카펫을 따라 순서대로 입장했다. 짧은 이동이었지만 대학을 향해 달려온 시간과 경희의 이름 아래 서는 시간을 가르는 경계처럼 느껴졌다.

이 퍼레이드는 2013년부터 정착된 우리 대학만의 입학식 프로그램이다. 경희기록관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입학식을 치를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장 넓은 공간이었던 노천극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1979년 국제캠이 설립된 뒤 1980년 첫 신입생들이 공학관 앞에서 입학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서울캠과 국제캠은 각각 노천극장과 중앙도서관 로비, 사색의 광장 등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1997년에는 잠실실내체육관을 대여해 서울-국제 합동 입학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국제 공동 입학식과 식전 퍼레이드가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2013년부터다. 이후 입학식은 평화의 전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엔 공간 제약 속에서 치러졌던 입학식이 이제는 퍼레이드를 통해 경희인으로서 출발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자리했다.

평화의 전당 내부로 들어선 신입생들은 단과대학별 배정 좌석에 착

이드가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2013년부터다. 이후 입학식은 평화의 전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엔 공간 제약 속에서 치러졌던 입학식이 이제는 퍼레이드를 통해 경희인으로서 출발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자리했다.

평화의 전당 내부로 들어선 신입생들은 단과대학별 배정 좌석에 착



입학식은 축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진=이은서 기자)

석했다. 하층과 중층, 상층을 채운 모습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학번으로 모였음을 보여줬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본 행사에서 김진상 총장은 신입생과 가족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김 총장은 “대학은 지금까지 경험한 경계를 넘어 질적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공간”이라며 배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77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대학의 역사를 언급하며 “신입생 여러분의 미래와 경희의 미래를 일치시키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완벽함”이란 완벽을 지향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하며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 공감과 통찰, 그리고 회복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공감과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가족들은 행사장 내부가 아닌 크라운관에서 실황 중계를 통해 입학식을 지켜봤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자녀의 모습을 찾는 시선이 이어졌고 단과대학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도경(정보디스플레이학 2026) 씨의 부모는 “지방에서 올라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걱정도 있었지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했다”며 “오늘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태현(지리학 2026) 씨의 학부모 역시 “3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와 준 것이 고맙다”며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학교 슬로건인 ‘그대 살아 숨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문구는 이날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전진은 거창한 선언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스스로 책임지고 채워야 한다는 다짐에 가깝다. 입학식은 축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013년부터 이어진 퍼레이드 전통은 또 한 번의 학년을 맞이했다. 교시탑에서 시작된 행진은 평화의 전당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됐고 2026학번은 그 역사 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통과해 도착한 자리였다. 서로 다른 꿈과 시연을 안고 모인 이들은 이제 ‘경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 긴 수험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이 출발선에서 신입생은 또 다른 배움과 도전의 시간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6 기획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 · 고착화되는 ‘극우 정서’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앞선 3회차에서는 청년들이 극우적 정서를 가지게 된 구조와 교육, 사회 환경의 요인을 살폈다. 이번 4회차에서는 이러한 극우적 정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굳어지는지에 초점을 둔다. 오늘날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극우적 정서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확산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아도 접해 알고리즘이 만든 노출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X(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된다. 관심 분야의 콘텐츠를 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능동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콘텐츠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엄정민(중국어학 2024) 씨는 “평소 유튜브로는 정치나 시사 이슈를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도 유튜브를 열자마자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특정 정치 유튜버의 영상이 뜬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의도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알고리즘의 특성에 있다. 미디어학과 이종혁(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콘텐츠를 좋다고 판단해서 밀어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래 보고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를 밀어 준다”며 “고각성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이 경향을 기술적으로 강화한다”며 “한번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점점 더 극단적인 쪽으로 추천이 이어지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이라 설명했다.

숏폼 · 밈 형식 콘텐츠 극우 정서의 확산 경로

이러한 콘텐츠들은 숏폼·밈의 형식으로 유통·확산되고 있다. 2024



이 교수는 “알고리즘에 의해 한번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추천이 이어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진=이환희 기자)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숏폼 이용자에게 온라인 동영상 시청 중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은 결과 ‘50%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는 23%로 숏폼 이용자 4명 중 1명 꼴이었다.

일반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1분 내외로 구성돼 직관적이며, 빠른 소비와 높은 확산성을 가지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각인시키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사회정책학) 교수는 “숏폼의 특징이 어떤 증거나 설명이 충분히 담겨있기보다, 짧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엄 씨는 “예를 들어 ‘MZ와 틱톡의 사고 차이’라는 주제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타국 대통령을 조롱 섞인 패러디로 이미지화한 유튜브 숏츠와 같이 숏폼에서 주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욱(미디어학 2020) 씨는 “사

람들이 진지한 글은 소비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 숏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는 약간의 불화나 과장을 가미해 소위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콘텐츠를 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미디어는 조회수와 체류 시간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관심경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혐오 같은 극단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업 전략이 된다”며 “극우 콘텐츠의 확산은 이념 동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런 관심경제 중심의 과잉 상업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숏폼, 밈의 문제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혐오 표현이 유머나 풍자의 외피를 쓰면 수용자는 그것을 어떠한 주장이 아닌 그저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게 된다”며 “이러한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가벼운 참여가 사실상

혐오 담론의 확산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익명성 · 의견 쓸림 현상 극우 정서 고착화시켜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러한 정서를 더욱 고착화한다. 엄 씨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을 보다 보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세대와 성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커뮤니티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중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닫혀 있는 시기이고 학원, 학교로 반복되는 학습의 굴레에서 자신의 욕구를 온라인 상에서 표출하는 시기”라며 “그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기보다는 어떤 글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쭉 달리는 등의 의견 쓸림 현상을 보고 그것을 자신

의 생각에 내재화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극우 정서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 평소라면 하지 않을 과격한 발언을 쉽게 하게 된다”며 “이 과격한 발언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별거 아닌 것, 심지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탈역제, 탈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으로서의 판단과 책임 감각이 약해지고, 집단의 정서에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환경 개선 방법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와 혐오 콘텐츠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리더십 교육도 대폭 확대해 가짜뉴스 구별 수준을 넘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내가 보는 콘텐츠가 왜 추천된 것인지 이해하는 알고리즘 리터러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끊긴 뒤, 2주간 부모님과 연락 두절”

통화가치 급락 · 쌓인 정치적 불안...이란 유학생의 증언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해 12월, 통화가치 급락을 배경으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다. 인터넷 접속이 전국적으로 차단됐고, 뒤이어 정부가 실탄을 포함한 강경 진압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 무기화 논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결렬될 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축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은 이란에서 온 유학생 A씨를 만나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와 함께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 물었다. 단, 인터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시 고국인 이란에서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관계로 익명으로 처리한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인터넷이 끊긴 뒤 2주 동안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한국에 거주 중인 우리학교 이란 유학생 A씨(익명)는 지난 1월 8일 이란의 대규모 시위·진압 국면을 이렇게 기억했다. A씨에게 가족의 안부, 고향의 소식, 친구들의 생존이 한꺼번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미래가 안 보였다” 이란에서의 불합리한 경험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테헤란에서 살았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유학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약 1년 반 가량 어학연수를 한 뒤 이란으로 돌아가 학사 과정을 마쳤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란에서의 학부 시절은 “노력으로 쌓은 결과가 언제든지 불합리한 기준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A씨는 “캠퍼스에는 학생의 복장과 행동을 감시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히잡 착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로 스카프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학생증을 압수 당해 수업이나 시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학생증을



홍지우

이란의 새학기 첫날인 24일에도 수도 테헤란 대학가에선 여전히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돌려받기 위해 사과해야 했고, 그 과정이 기록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따라다녔다”고 한다.

졸업 이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사처럼 국가와 관련된 직업을 원하면, 능력보다 사상과 신념이 체제와 일치하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두려움 없이 공부하고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유학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이유 ‘물가’만은 아나 정치 시스템 불안 때문

시위가 격화된 1월 8일, 이란은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차단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A씨는 “한국에서 공부 중인 다른 이란 유학생 친구는 매일 1시간 넘게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통화 비용이 너무 올라 이제 하루 1분만 통화한다”며 “그 얘기를 듣고 몇 시간 동안 친구와 함께 울었다”고 회상했다. A씨 본인도 “인터넷이 끊기고 대규모 시위가 있던 때 2주간 부모님과 아예 연락이 안 됐다”고 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비유가 아닌 현실이었다. A씨는 “상상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시간”이라고 했다. 억지로 잠을 청해도 꿈속에서 텅 빈 이란 집과 함께 사라진 가족의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다. A씨는 “예전에 엄마가 보내줬던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의 불씨는 경제적 고통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로이터는 테헤란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가 통화 가치 급락과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과 맞물렸다고 전했다. 세계은행 지표(WDI) 기준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부터 4개년 평균 약 41%로, 매년 상승했다. 같은 지표에서 한국은 4개년 평균 약 3.38%이다.

다만 A씨는 시위의 출발점을 ‘물가’로만 좁힐 순 없다고 봤다. A씨는 “경제가 무너지는 감각은 오래 전에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연(인류학) 교수는 “물가 폭등뿐만 아니라, 1979년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며 신정 체제 속에서 정치 시스템과 사회 부패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며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란의 현재 시위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구 교수는 “지난해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을 겪으며 그 당시 국가적 위기가 왔었다”며 “오히려 6월 전쟁 당시보다 12월의 환율이 더 많이 올라 불안정했던 국가 시스템에, 경제적인 위기까지 더해 전국적 시위로 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위 국면에서 강경 진압과 사상자 증가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다. 총상 환자로 병원이 넘쳤다는 의사의 증언이나 13일 이란 국영방송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A씨는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이대로 사는 건 죽느니만 못하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갔다고 친구들이 말했다”며 “무서울 게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구 교수는 “1979년에 세워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체제는 견고한 시스템”이라며 “이슬람 공화국에는 일반 군대와 이슬람 정권을 수호하는 혁명 수비대도 있어 체제 붕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관심을 가져주세요”

A씨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큰 행운’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한편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란에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억압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가서 함께 버티고 싸워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은 확보됐지만, 마음의 평온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신문 독자들에게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바라는 관심은 거창한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 일들이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폭력과 희생을 정당화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8 종합

국제캠도 경희꿈도전장학 도입 학생성장 중심 장학 비중 확대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국제】 '경희꿈도전장학'이 국제캠에도 만들어진다. 경희꿈도전장학은 학생들이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자아성찰과 도전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장학제도다.

성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아닌 '도전 의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창업 ▲자유 주제 ▲학술 연구 ▲SDGs(경희정신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서울캠에서만 운영됐으나, 이번 학기부터 국제캠에도 확대 적용된다. 우리학교는 '2025 교육혁신 전략'에 따라 장학

체계를 소득 중심 지원에서 학생 성장 기반 지원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작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며 가계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 장학 제도는 학생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량강화장학'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행복장학을 폐지하며, 해당 재원을 학생 역량강화장학으로 재배분하는 등 장학 구조 개편도 이뤄진 바 있다. 경희꿈도전장학을 국제캠에 도입하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장학팀은 "경희꿈도전장학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캠까지 확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은 우리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캠퍼스 간 장학제도 일원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장학팀은 "일원화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학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캠과 동일한 운영을 목표로 하되, 캠퍼스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캠은 꿈도전장학 I·II를 운영중이지만, 국제캠은 우선 I을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2026학년도 1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농구부, '2026 대학농구 윈터챌린지 상주대회' 준결승서 마감

농구부가 '2026 대학농구 윈터챌린지 상주대회' 단국대와의 준결승에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신입생들의 데뷔전이었던 이번 상주대회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합을 맞춰보는 첫 실전이었다. (사진=한국대학농구연맹)

경기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 '판교 VI 캠퍼스' 등 3대 과제 발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지난 26일 '경기도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열렸다. 지역 혁신을 목표로 추진해 온 RISE 사업과 융합기술연구원의 1년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3대 핵심 과제 '판교 벤처 인큐베이팅 캠퍼스 조성', '로컬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지수 개발', '우주·국방 반도체 핵심 IP 국산화'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2025 경기도 RISE 사업단은 주요 성과로 판교에 '벤처 인큐베이팅 캠퍼스(VI 캠퍼스)'를 조성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이 공간은 서울캠의 바이오 헬스케어 인프라와 국제캠의 AI·반도체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융합 거점이다. RISE사업단(국제) 최석원 부단장은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창업 지원을 넘어 대기업 및 우수 스타트업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대학 내 첨단 기술과 성장 경험이 실제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지난 26일 '경기도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열렸다.

(사진=도은오 기자)

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파트너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산학협력혁신센터는 지역 고유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컨

설팅하는 '로컬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듯 지역도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성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 결과는 서열이 아닌 각 브랜드의 개성을 담은 '오각형 성장 지도'로 시각화했다. 박상희 센터장은 "올해 최종 선정된 20개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형, 확산형, 지속성장형

등으로 유형화했다"며 "이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향후 지역 브랜드의 성공 패턴을 복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센터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우주·국방 반도체의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했다.

최근 민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하는 내방사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기술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센터의 임영현(전자정보공학) 교수는 "연구진이 방사선 입자에 의한 찰나의 오작동과 서서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누적 손상에 모두 강한 설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AI 연산 시 발생하는 전압 변동을 빠르게 회복하는 하드웨어 기술 개발도 병행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경기도 RISE 사업이 단순한 재정 확보나 수익 창출을 넘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최 부단장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지식이 시민의 경험과 행동으로 전환되는 구조 그 자체가 라이프가 지향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전했다.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오픈 “교내 데이터 보호가 핵심”



챗쿠 로그인 시 기본 설정 모델은 GPT-5.1 Chat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진=ChatKHU 화면 캡처)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DX추진단이 교내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챗쿠)'를 정식 오픈한다. 학생들은 오는 1학기부터 사용 가능하다. 챗쿠는 최신 생성형 AI를 대학 구성원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우리학교 전용 통합 AI 플랫폼이다.

현재 ChatGPT, Gemini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외부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만, 별도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DX추진단 심성원 과장은 “챗쿠는 단순히 외부 AI 서비스를 모아 둔 포털이 아니라, 우리학교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비용·운영 효율을 갖춘 통합 AI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기존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으로는 보안성이 꼽힌다. 심 과장은 “민감한 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행정정보 등 교내 데이터 보호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큰 풀(Token Pool) 방식을 적용해 개별 유료 구독보다 낮은 비용 구조로 최신 대형 언어모델(LLM)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토큰 풀 방식은 AI 모델 사용 시 발생하는 연산 비용을 '토큰' 단위로 계산해 하나의 공용 자원처럼 운영하는

구조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OpenAI, Google, Anthropic 등 다양한 최신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챗쿠 로그인 시 기본 설정 모델은 GPT-5.1 Chat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모델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델에 따라 성능과 특성이 달라 작업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챗쿠는 '크레딧' 방식을 통해 사용량을 관리한다. 학부 재학생에게는 매월 2,000크레딧, 교직원에게는 5,000크레딧이 제공되며, 크레딧은 매월 초기화된다. 크레딧은 실제 금액이 아닌 AI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단위다. 질문을 많이 하거나 길고 복잡한 요청을 할수록 더 많은 크레딧이 차감된다. 또한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차감되는 양이 달라지며, 고성능 모델일수록 더 많은 크레딧이 필요하다.

심 과장은 “기본 제공 크레딧은 사업 예산과 구성원 규모를 고려해 설정한 운영 범위”라며 “정식 오픈 후 약 3개월간 실제 사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뒤, 적정 수준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단계적 확대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레딧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00원당 550 크레딧 단위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며, 일부 무료 모델은 크레딧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챗쿠는 교내 문서를 활용한 기능도 제공한다. 매뉴얼, 규정, 강의자

료 등을 업로드해 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기능과 제작한 챗봇을 공유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돼 연구 지원과 행정 업무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윤리 및 보안 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부 공개가 제한된 문서의 입력은 금지되며, AI가 생성한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반드시 정확성을 검토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심 과장은 이번 도입이 단순한 기술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학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연구·행정을 혁신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다”며 “ChatKHU는 구성원 누구나 동일한 기준의 AI 환경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설계, 학습 지원, 연구 생산성 향상,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혁신을 안전하게 실험하고 검증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hatKHU 도입 과정은 책임 있는 AI 활용과 학문적 진실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표절·대필 방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와 저작권, 사고 대응 등 AI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고도화하는 실증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공식 홈페이지 AI 기반 플랫폼 도입 2027학년도 공개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우리학교가 국·영문 메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각급 단위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약 1년 간의 제작 기간을 거친 뒤, 2027학년도 1학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대표 홈페이지와 웹진을 포함해 총 18개의 주요 홈페이지 및 시스템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 주요 단위 홈페이지가 개편 범위에 들어가며, 경희융합연구소와 인문사회과학 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도 함께 고도화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재구축되며, 관리자가 별도의 코딩 지식 없이 콘텐츠를 수정·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과편화돼 있던 각 단위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정보 구조를 대학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합 관리하고, 학과·부서 담당자가 공지 사항·갤러리·배너 등을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새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개발과 데이터 이관, 테스트를 진행한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박승훈 과장은 “단과대학·대학원·부서 홈페이지는 개발이 완료되는 순으로 공개된다”며 전체 서비스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7학년도 1학기 개강 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희 AI Agent Hub' 구축이다. 박 과장은 “경희 AI Agent Hub는 생성형 AI(sLLM)를 기반으로 한 대학 전용 지능형 서비스 검증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되는 해당 플랫폼은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해 ▲다국어 지원

▲콘텐츠 요약 ▲업무 보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성적 조회나 수강신청 등 학사·행정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진 않으며,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과 게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용자는 게시물 화면에서 다국어 번역과 콘텐츠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게시물에 대해 번역이나 요약이 한 차례 수행되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후 동일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장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서비스 검증 단계에서는 자체 AI 모델과 외부 번역 솔루션 간 성능을 비교해 우리학교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2026년에는 전면 도입에 앞서 기술 성능을 비교·검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번역과 요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과 뉴스 등 방대한 콘텐츠에는 AI 기반 번역을 병행하며, 해당 번역이 공식 번역이 아님을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입학·학술 안내 등 정확성이 중요한 정보는 기존처럼 전문 인력이 번역한 공식 영문 페이지로 제공한다.

교수 정보 분석 플랫폼도 함께 구축된다. 박 과장은 “기존 단과대학 교수 소개란의 단순한 인적 사항 전달을 넘어, 교수의 연구 성과와 각종 지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정적인 텍스트 위주 교수 소개에서 벗어나, 지표 기반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논문 실적, 연구 분야, 성과 등 교수의 연구 역량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학문적 성취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화면 개편이 아니라 대학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이라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0 지역사회

두쫘꾸 맛집 '무드베이킹' 아이들에게 달콤한 하루 선물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회기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한 빵집 '무드베이킹'이 명진들꽃사랑 보육원 아이들에게 '두바이쫘꾸쿠키(두쫘꾸)'와 다과를 기부한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무드베이킹은 먹방 유튜버 띠미의 두쫘꾸 맛집 소개 영상에 등장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의 두쫘꾸 맛집을 다룬 해당 영상은 344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무드베이킹 사장 이민지 씨는 매일 아침 사람들로 늘어진 줄을 보다 기부를 결심했다. 이 씨는 "아침부터 몇 시간을 기다리고 꼬깃꼬깃한 지폐를 건넨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두쫘꾸를 먹어보지 못했을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기부 행사는 띠미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 씨는 "이전에 한강 행사에서 우연히 아이들이 띠미 씨를 보고 좋아서 오열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더 오래 기억될 하루를 선물하고 싶어 초통령

인 띠미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말했다. 기부를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있었다. 마가린 등 저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재료를 고집하는 무드베이킹의 베이킹 철학 탓에 방문객이 크게 늘었음에도 수익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손님들이 오픈런을 시작하며 매장 준비도 꼭두새벽부터 시작했다. 이 씨는 "빵의 맛은 결국 재료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타협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해 고민했지만 전부터 품어온 기부의 소망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드베이킹' 사장 이민지 씨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류빈 기자)

무드베이킹은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료를 들여 2주간 두쫘꾸, 휘낭시에 등 다과가 담긴 100개의 선물 상자를 준비했다. 준비 과정에서 이틀간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준비한 다과를 가지고 지난 10일 보육원을 찾은 이 씨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 씨는 2022년 빵을 먹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드베이킹을 시작했다. 이 씨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빵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보고 재개로 빠지게 됐다"며 "개업 이후 첫 기부였는데 이후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대학가 주변 월세 고공행진...더 높아진 학생 주거 부담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멈출 기미 없는 월세 강세,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최근 학교 인근 자취방을 알아보면 이재원(응용수학 2025)씨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예상보다 훨씬 상승한 원룸 가격에 놀란 것이다. 이재원 씨는 "지방대학 원룸에 비해 월세가 비싼 것은 감안했지만 이 정도로 비쌀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가 인근의 월세 강세 현상이 가속화되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33㎡(10평)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캠퍼스는 62만 2000원으로 5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대비 월세는 평균 2.0%, 관리비는 5.1%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9년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회기역 인근은 월세 자체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관리비가 5.4% 오르며 실질 부담이 커졌다.

국제캠퍼스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公示된 33㎡(10평) 이하 거래된 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평균 월세 가격은 38만 5000원을 기록하며 2019년 동월(31만원) 대비 약 24.1%가 상승했다.

회기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물

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임대 사업자들이 월세 상승 폭을 더 키우며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더욱 불붙는 월세 경쟁, 전세 축소와 공급부족이 원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전세 매물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은 월세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세 매물은 지난해 1월 1,505건에서 420건으로 줄어 72.1% 급감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이다. 영통구 역시 전세 매물이 67.06% 감소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자 상대적으로 월세에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월세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이 발표된 『2025년 주택시장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지수는 72.6다. 수급지수란 202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연도별 누계 수요량 대비 누계공급량을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100 초과 시 공급과잉을, 100미만시 공급부족을 의미한다.

한성대학교 권대중(경제부동산학) 석좌 교수는 "대학가 주변 주택의 경우 오랜기간 자리 잡아 고밀화된 상태"라며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공급 장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취업 한파에 따른 졸업 유예생 확대는 자취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유학생이 증가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졸업 유예생이 대학가에 장기간 체류하며 과잉 경쟁으로 월세가 증

대학가 인근 월세 실거래가 추이

매년 1월 실거래된 33㎡(10평) 이하 월세 평균 가격 기준(관리비 미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치인 36%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권 교수는 "경희대의 경우 대학가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비해 교육용 부지가 훨씬 여유 있는 편"이라며 "교내 기숙사 여건 확대와 민간 기업과의 공공기숙사 위탁 경영 등의 방법으로 월세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확대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대학원 스마트부동산학과 구한민(도시공학) 교수는 "가구 소득의 30%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형태인 '어포더블 하우스'의 확대 등 공공 주거 형태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부담이 커진 학생 또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지현(미디어학 2024)씨는 "늘어난 등록금에 올라간 월세까지 부담하려 하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다가와 알바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주변 학생들도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자취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 정부정책과 금리 등 여러 복합 변수에 의해 움직인다. 청년층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하고 부동산 경험도 부족해 주거비 변동에 더욱 민감하다. 학생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한 구조다.

야호 공인중개사 이영섭 대표는 "최근 외국인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취업시장 악화로 인해 1인 가구에 장기 거주하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다"며 "비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어느 때보다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확충 재검토 필요

전세의 월세화와 주택공급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학가의 월세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숙사 확대와 공공주거 확대 등 인프라 강화를 강조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작년 기준 서울캠은 9.3%, 국제캠은 26.7%다. 이는 467개 대학의 평균

오피니언

11

사설

다전공 이수 기준학점 하향, 전문성은 어찌나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부 학과에 대한 다전공 이수 기준 학점이 하향 조정됐다. 다전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다전공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대학의 본래 목적인 교육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개편 전까지 다전공 이수 학생들은 본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약 20학점 가량 낮은 이수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다전공 학생들의 이수 기준은 학과별로 최소 2학점부터 최대 9학점까지 추가 하향된다.

9학점이 하향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컴퓨터공학과 등, 단일전공과정 이수 시 8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다전공과정 이수 시에는 51학점만 이수해도 전공 과정 이수가 인정된다. 본전공생과 다전공

생 사이 37학점의 격차는 자신의 분야를 이제 막 공부하려 하는 학생들에게 분명 적은 차이는 아닐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수 대다수는 “본전공 학생들과 똑같은 인정을 받고 싶다면 똑같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 이수는 적게 하고 학위는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도 거기서 더 바랄 필요가 있나”며 의문을 내비쳤다. 또 “사회에 나가서 본전공생들과 똑같은 졸업생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며 다전공을 이수하게 될 학생들을 향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는 소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려들은 실제 예상되는 문제들이기에 마냥 덮어둘 수만은 없다.

당장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전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 정책들도 속

속 발표되고 있다. 기계공학부 지능로봇공학전공과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다전공생의 타전공 전공학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점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위 결정의 배경으로 또 한번 “학습 부담 완화”를 언급했다.

최근 많은 대학이 다전공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도록 해 사회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위함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입한 다전공 정책이 그저 다른 전공을 ‘경험해 보는 것’에 그친다면, 학생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학을 떠나게 될 위험에 놓인다. 전공이 더 이상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대학 교육이 제공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전공 확대 정책이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학습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다전공 확대는 전공의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전공의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도입했다면, 그 선택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책임도 학교에 있다. 전공 이수의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전공 교육의 밀도를 낮추는 방향일지는 학교에 달렸다. 해당 전공의 필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세시봉

시안전불감증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청년들이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준 뒤 반응을 촬영하는 영상이다. 강도나 노숙자로 보이는 낯선 인물을 현관이나 집 내부 사진에 합성해 보내는 식이다. 부모님들은 창작물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실제 경찰에 전화까지 했다는 일화도 종종 들려왔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일 수 있지만, 이는 AI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비해 경계심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AI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응답 비율이 25개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신뢰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AI 관련 영상에서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AI 기술 발전으로 사실 구분이 어려워 두렵다는 반응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다며 웃어넘기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많은 청년층이 ‘AI 안전 불감증’에 처해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는 ‘AI 공존도시’로 행정 전반에 AX(AI Transformation)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동대문구 또한 AI 공존도시 선포식을 열어 취재를 다녀왔다. AX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뜻한다. 문제는 AI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지자체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그로 인한 오류나 사고 발생 시 피해는 특정 부서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 AI의 화려함 속 숨겨진 이면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AI 기술은 기업, 행정, 문화 등 다방면으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뒤바꿔 놓았다. 하지만 AI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한국 사회 특성상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AI를 활용하는 주체인 인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란 유학생 인터뷰

눈물의 인터뷰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해 12월부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온 우리학교 유학생 A씨를 만났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가 겪은 감정을 고스란히 들으며 기자이기 전에 같은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렸다. 뉴스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이 겪는 슬픔은 무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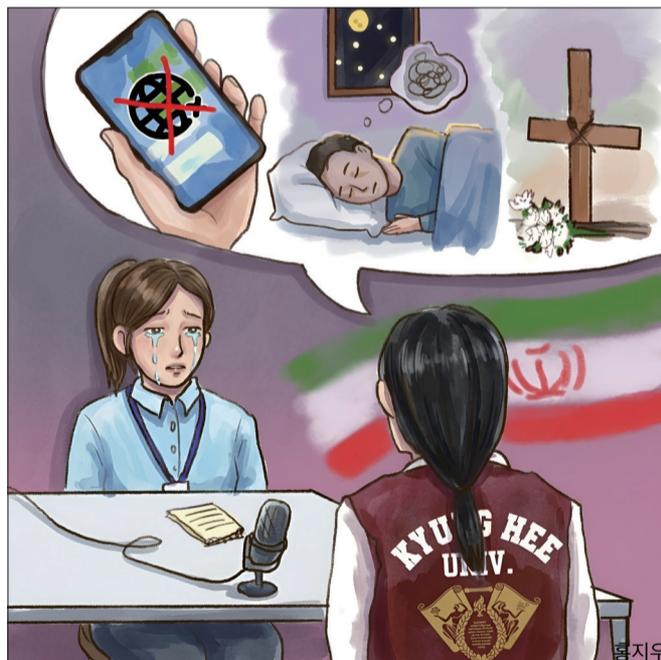
시위의 근본 원인은 물가 급등과 정치 체제에 쌓인 불만이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신정 공화국 체제로 종교에 의한 최고지도자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히잡 착용 의무화, 성소수자 탄압, 여성의 스포츠 관람 금지 등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다.

A씨는 자신이 자라오면서 느낀 부담한 것들을 토로했다. 엄격한 외출이나 대학교에서 남학생과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할 뻔했던 경험 등. 그에게 이란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는 불안과 분노를 남겼다.

특히 지난 1월 8일 이란에서 가족,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던 이야기는 나를 눈물짓게 했다. 거리로 뛰쳐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2주간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아 매일 잠 못 이루던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독재 정권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보거나 부모님 세대에 전해지는, 현대에는 없을 이야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도 이란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년에서 노인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씨가 우리에게 바란 건 ‘잊히지 않기 위한 작은 관심’이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낸다.



만평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의 이야기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신동면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12 스포츠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으로 마무리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축구부가 지난 25일 '제 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에서 연세대에게 1-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리학교는 전반 시작과 동시에 연이은 유효슈팅을 통해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전반 40분 선제 실점하며 0-1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8분, 프리킥 상황에서 한준희(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왼발로 득점하며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 9분, 이영진(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몰렸다. 결국 후반 32분과 40분 연달아 실점하며 1-3으로 경기가 끝났다.

16강부터 4강까지 3경기 연속 승부차기 승리의 주역인 이준희(스포츠지도학 2024) 골키퍼는 "결승전에서 뇌진탕을 당해 후반전에 교체돼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다.

4강 아주대전에서는 0-0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을 내렸지만 이 선수가 막아내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활약한 이 선수는 "모두가 포기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선수상을 수

상한 주장 장하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에너지가 팀 분위기를 만든다"며 "이 두 가지를 지켜줄 것을 선수들에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박태양(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는 "새롭게 시작되는 U리그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닿지 못했지만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 선수는 "U리그와 추계 대회에서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며 만회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축구부가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한국대학축구연맹)

승마 전설 故서정균 감독의 마지막 제자 "말들과 함께 예순까지 선수생활 하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으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눈다. 아홉 번째 주인공으로 승마 마장마술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는 김태건(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운동과 동물 좋아해 시작한 승마 말 돌보느라 사춘기도 안와

김태건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말을 탔다. 시작은 취미였지만 선수로 발탁돼 5학년부부터는 대회에 출전했다. 운동도, 동물도 좋아했던 김 선수에게 승마는 최고의 종목이었다.

다양한 출전 경험이 있는 김 선수의 주종목은 마장마술이다. 마장마술은 정해진 운동과목을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평가하는 종목이다. 처음엔 마장마술에 흥미를 못 느꼈다는 김 선수는 최고 난이도인 S클래스 경기를 뛰고 나서 "뽕 반했다"며 "까도 까도 계속 배울 게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두 마리의 말과 호흡을



김 선수는 "60살까지도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며 "몸이 따라주는 한 오래 선수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진=김 선수 제공)

맞추고 있다. 평균 수명이 26년 정도 되는 말들에게도 전성기가 있다. 종목별로 장애물은 9살부터 15살, 마장마술은 9살부터 관리하기에 따라 25살을 넘기는 말들도 있다. 장애물은 15살 '리베로'와, 마장마술은 17살 '산드로'와 함께하고 있다.

취미가 일이 되면 뭐든 그렇듯, 김 선수는 "가끔 운동 나가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꾸준한 운동의 동력이 됐다. 그는 "다른 종목과 달리 내가 쉬면 말들이 1평도 안 되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도 꾸준히 운동한다"고 말했다. 승마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의 유대감이 중요하다.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도 말이 따라오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

할 수 없다. 김 선수는 "리베로가 요즘 속을 썩고 있다"며 "시합장 들어가서도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말 뿐만 아니라 김 선수도 장애물 거리를 제대로 제지 못하는 등 슬럼프가 있었다. 하지만 중학생 때도 흔히 말하는 '중2병'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 선수는 "매일 관리해야 할 말들이 있으니 내가 사춘기가 올 틈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승마 전설 故서정균 감독의 마지막 제자가 되다 "승마장에도 아빠가 있었다"

김 선수의 스승은 우리나라 승마

계의 전설 故서정균 감독이다. 서 감독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부터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까지 총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선수는 "집에도 아빠가 있고, 승마장에도 아빠가 있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 감독의 다른 제자는 김혁, 남동현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서 감독이 이끌었던 청학승마클럽에선 김 선수를 '막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지난해 서 감독이 별세하면서 김 선수가 마지막 제자가 됐다.

김 선수에게 서 감독은 좋은 선생님이자 무서운 선생님으로 남아있다. 그런 서 감독은 뒤에선 김 선수의 어머니에게 "엄마는 좋겠어, 아들내미 말 잘 타서"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고 한다. 김 선수는 "감독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유 없이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셀 수 없이 많았던 낙마 부상에도 "예순까지 선수로 남고 싶다"

김 선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말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부상도 많았다. 그는 "예전에 장애물 훈련을 하는데, 말이 거부하길래 오기가 발동했다"며 "무거운 나무 장애물에 입을 박아서 송곳니에 입술 옆이 뚫려 피가 철철 났던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도 당시 '말에 미쳐있던' 김 선수는 "한 번만 더 해보고 가겠다는 걸 코치님이 제발 병원에 가라고 애걸복걸하셔서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아직 우리학교엔 승마부가 없다. 현재 정기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역시 김 선수뿐이다. 김 선수는 "새내기가 들어오면 현역선수가 있어서 승마부가 만들어질만 한데, 어렵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승마는 60대 현역선수가 있을 정도로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 생활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김 선수는 "60살까지도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며 "몸이 따라주는 한 오래 선수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선수의 최종 목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전국체전 입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는 "감독님이 올해 아시안게임 선발전까지 레슨하고 은퇴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감독님을 생각해서라도 아시안게임 한 번은 나가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냈다.